

잘 가라, 2023년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해가 저무는 길목, 한해를 되돌아본다. 80억 인류와 지구는 안녕했을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조용한 날이 없었다.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 등 크고 작은 기상재난과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빈발했다. 수년 전부터 지구 기후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과거보다 호전되지 않았다. 안녕하지 못했던 한해였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금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라고 했다. 신기록이다. 육상경기에서의 박수갈채를 받는 신기록이 아니다. 지구와 인류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못된 신기록이다. 지구대기 중 CO₂ 농도도 420ppm 육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기록이고, 매년 이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과학자들이 '가장 안전한 수준은 350ppm'이라 했는데,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화석연료에 의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금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 368억 톤을 기록했다. 이것도 신기록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 더 많은 CO₂가 지구대기로 방출되고, 대기 중 CO₂

농도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2023년 세계 각처가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기후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후재난의 악순환이 반복된 한해였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현실이다.

이미 20여 년 전, 세계는 이를 인지했고,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세계 모든 국가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 이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려고 파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까지 기후보호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동이나 실행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를 향해 '인류가 기후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가고 '지구열대화(Glabal Boiling) 시대가 왔다'고도 했다. 그만큼 절박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자 가장 강한 경고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의 행진을 멈춰내자는 것이다.

지난 12월 13일, 유엔은 COP28(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을 마무리하면서 'UAE Consensus(아랍에미레이트연합 합의)'를 채택했다. 정식 명칭은 '전 지구의 이행점검 결정문'이다. 이 합의는 지난 5년 동안 각국의 기후정책을 평가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온난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취해 나가야 할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세계가 향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에너지 효율성 2배 확대' 등의 내용이다. 또한 2030년까지 2019년 수준에서 43% 온실가스 감축, 2035년 60% 감축 그리고 2050년 제로배출 등 목표도 확고히 했다. 130여 개 국가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퇴출(석탄 2030년대, 석유 가스 2040년대)'을 주장했지만, 산유국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퇴출'에서 '전환'이란 문구로 최종 수정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화석연료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악순환과 신기록 행진의 중단을 위해서 디딤돌이 만들어진 셈이다.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COP28에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화석에너지와 CO₂를 단계적으로 빼내야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3배와 에너지 효율성 2배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가져야 한다.

2023년이 과거로, 역사 속으로 가고, 많은 숙제를 신년으로 넘겼다. 신년에도 할 일이 많다. 다가오는 신년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이겨내는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잘 가라 2023년, 어서 오라 2024년!!

社說

새로운 도약 위해 '유종의 미' 거둘때다

미완성 현안들 소임 완수해야

전남일보가 '2023년 광주·전남 주요 이슈'를 내놨다. 광주·전남은 크고 작은 성과를 올리며 한해의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내달려 왔다. 세월에 들러온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큰 이슈로 꼽힌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2025년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국가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함평이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무안의 극렬한 반대와 시·도간 이전 후보지를 놓고 신경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회동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광주에서는 복합쇼핑몰이 가시화됐다. 광주신세계의 백화점 신축확장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개발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더현대 광주'도 1

년여 간의 사전 협상 끝에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여금 규모를 수용했다.

전남에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올해 메가이벤트로 개최한 15년만의 전국체전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역대급 성과와 흥행 성적을 거뒀다. 영호남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역시 적극적으로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들 모든 현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문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고, 복합쇼핑몰도 교통평가, 소상공인 상생 여부 등이 남아있다. 달빛철도 특별법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해묵은 현안들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시도가 올해가 저물기 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때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우리 모두 책임져야

광주 언어·신체폭력 등 늘어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늘어났다고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못난 행태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층의 불공정, 물질성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는 천박한 배금주의가 만들어 낸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인 학교마저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고3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만 71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로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초·중학교 각각 0.5% 포인트, 고등학교는 0.1% 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 18%, '집단따돌림·괴롭힘' 15.8%, '강요' 7.6%, '사이버괴롭힘' 6.4%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언어폭력'과 '사이버괴롭힘'은 감소했지만 '신체폭력'과 '강요', '집단따

돌림·괴롭힘'은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방임적 관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가 실종된 현실에서 등장한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와 각종 학교폭력을 목도했다. 질서와 규율, 책임과 의무가 사라진 학교는 단순하게 교사와 학생의 문제만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듯, 학교는 이미 무너져 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 더욱이 교실에서 폭력이 횡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피해 학생이 사회로 나가 겪을 미래도 볼 수 보듯 뻔하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에 힘써야 한다. 성적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경계하는 가정 교육도 중요하다. 작금의 학교 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와 아이들의 변화에 앞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크리스마스 박물관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뉴시스

서석대

사발통문(沙鉢通文)이란게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알리는 고지문(通告文)이다. 그런데 통문의 모양이 특이하다. 사발(밥그릇)을 엮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었다. 순서대로 이름을 적지 않고, 빙 둘러서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주도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사발통문은 조선 후기에 농민 항쟁의 '도구'로 많이 쓰였다. 관에 항의하기 위해 각 마을마다 이를 둘러 사람을 모았다.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고부민란 때 동학군의 통문제1호가 사발통문이었다. 문

서가 관에 발각될 경우, 누가 주도자인지 알 수 없게 해 '동지적 결합'을 도모했다.

서양에선 라운드 로빈(round robin)이란 용어가 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각 팀이 다른 팀과 모두 최소한 번씩 경기를 치르게 해 전반적인 승패 기록에 따라 마지막에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방식이다. 원래 서명자의 순서를 감추기 위한 사발통문식 청원(탄원)서에서 유래했다. 반란이 교수형에 처해지던 유럽 왕조시대에 누가 먼저 사인을 했는지를 감추기 위해 원 안에 이름을 적었다는 설이다. 원형 서명 형태가 둥근 리본(round ribbon)과 비슷하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와 비교해, 연판장(連判狀)은 같은 의견이나 주장을 담아 연명으로 적은 문서이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 서명하고, 도장이나 지장으로 다시 확인한다. 연명으로 적은 게 사발통문과의 차이점이다.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는데, 당시 유생들이 연판장 성격인 유통(儒通)을 둘러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 '연판장 정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다. 그런데 양당의 주도자가 모두 초선 의원들이다. 당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할 초선 의원들이 혁신 대상이 된 꼴이다. 당 지도부를 옹위하고, 내년 총선 공천장 앞에 줄서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당의 도덕성 문제, 보궐선거 패배 등 당내 비판에는 침묵하더니, 초선 다은 소신은 다 어디갔는지 싶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드보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